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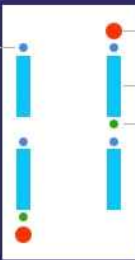
경전철 사고 관련 국민행동요령

□ 경전철 피해시 행동요령


객실 내 안전장치 설치 위치는 지역·지하철 노선에 따라 다르므로 평소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


역사내 안전장비 위치



내부비상핸들



소화기
출입문
비상인터폰

- 01 화재 감지기: 객실당 2개, 차량의 화재에 대비
- 02 소화기: 객실당 2개
- 03 CO2 감지기: 객실당 2개, 쾌적한 객실환경을 위하여
- 04 LCD 모니터: 객실당 2개, 정차역 정보 및 유용한 정보제공
- 05 내부 비상핸들: 객실당 4개, 비상시 출입문의 개폐 (비상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해당 출입문 개폐가능)
- 06 비상 인터폰: 객실당 2개, 비상시 종합관제실과 통화
- 07 휠체어 고정벨트 함 및 Hand Rail: 객실당 1개, 휠체어 승객의 편의
- 08 CCTV: 객실당 2개, 승객의 안전 확보
- 09 DC등: 객실당 4개, 축전지에 의한 전원공급으로 정전 시 비상등 점등

● 경전철 열차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면

1. 비상통화장치로 사고 내용을 관제사에게 알리고



➡

2. 화재발생시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한 후



➡

3. 출입문 쪽 비상도어리버를 수동으로 열고 탈출



□ 경전철 화재발생시 대피요령

- 출입문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관제사와 연락합니다.
-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.
-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열고,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니다.
- 스크린도어(PSD)가 열리지 않을 경우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빨간색 바를 밀고 나갑니다.
- 코와 입을 수건, 티슈,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니다.
-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 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,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갑니다.
-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방향으로 대피합니다.

■ ■ ■ 수동으로 출입문을 여는 요령 ■ ■ ■

- ① 출입문 쪽 벽면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.
- ② 뚜껑 속의 빨간색 비상핸들을 반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립니다.
- ③ 출입문을 양쪽으로 밀어서 여세요.

